

한국 패션브랜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중 여성 스트리트 패션 스타일 비교분석  
-2009 S/S 서울, 상하이, 베이징을 중심으로-

배 수 정<sup>†</sup>

전남대학교 의류학과/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A Comparative Analysis of Styles of Street Fashion Between  
Korean and Chinese Women for Improving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Korean Fashion Brands  
-Focus on 2009 S/S Seoul, Shanghai and Beijing-**

**Soo-Jeong Bae<sup>†</sup>**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접수일(2009년 12월 24일), 수정일(2010년 1월 21일), 게재확정일(2010년 1월 27일)

**Abstract**

This study presents the basic resources for the enhancement of the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fashion brands in the Chinese fashion market. They are composed of the differences and common points of clothing styles in Seoul, Beijing, and Shanghai, by analyzing the style comparatively. The research was performed by taking pictures of the Summer 2009 street fashions, from July 1<sup>st</sup> to July 15<sup>th</sup> 1999 (10 am to 5 pm). Among the data about the three cities, 200 photos were selected of women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respectively. The disparity of regional preferences were noted in the fields of easy casual, romantic casual, sports casual, character casual, classic style, and feminine style. There were no specific differences in style among the three cities in the easy casual and classic style. The romantic casual after the easy casual were more prevalent in Seoul, as compared to the two cities in China. The neat style was more prevalent in Seoul. In Beijing the feminine style after the easy casual were preferred. The conservative style was more preferred in Seoul, while the body exposed style was preferred in Beijing and Shanghai. In Shanghai, the character casual was preferred and shows the similarity to the fashion style of Seoul, rather than Beijing. The high exposure of the body in romantic casual and feminine styles was more remarkable in Beijing and Shanghai. The frequency of the character casual that emphasized individuality with a unique style was relatively high in Shanghai. Seoul, Shanghai, and Beijing showed a similarity in the acceptance of fashion trends and preferences in clothing style. However, the fashion coordination in Shanghai and Beijing was different from Seoul.

<sup>†</sup>Corresponding author

E-mail: sjbae@chonnam.ac.kr

본 논문은 2008년도 정부지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  
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  
음(KRF-2008-327-G00042).

**Key words:** Korean fashion brands, Fashion style, Street fashion; 한국 패션브랜드, 패션 스타일, 스트리트 패션

## I. 서 론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30년 동안 두 자리 수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다. 특히 중국의 섬유·패션 시장은 세계 섬유수입규제 해제 추세 및 섬유시장의 변화에 따라 더욱 빠른 속도로 확대(KOTRA, 2008)된 반면 한국의 섬유·패션시장은 1990년대 이후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많은 한국의 섬유·패션 관련 기업들이 중국 및 동남아, 개발도상국가로 그 생산기지를 이전하게 된 것도 이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에 진출한 한국 패션기업들은 급격한 임금상승, 물가상승, 중국 정부의 강화되는 법적 규제(2008년 1월부터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발효와 소득세 감면혜택폐지, 가공무역금지 품목확대 등으로 사업환경이 점점 고비용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저임금의 단순 임가공 위주의 한국 봉제기업과 중국에 진출한 한국 패션기업에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매우 인접한 국가이고 유행의 전파도 거의 실시간이라고 할 정도로 빠르지만, 양국 간 스타일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고 같은 스타일이라 할지라도 그 전체적인 코디네이션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국 패션시장 더 나아가 세계의 패션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진출하고자 하는 현지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패션 감각이 드러나는 스트리트 패션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감수성이 크고 변화에 민감한 젊은층이 빠르게 패션산업을 움직이는 시점에서 영 패션의 핵심이 되는 세계 곳곳의 스트리트는 패션의 발상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조규화, 이희승, 2004). 이러한 젊은 집단들은 중국 패션시장의 주요 소비자이므로 중국의 패션시장에 진입하려는 한국 패션브랜드 혹은 패션기업들은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트렌드위버 상해 백화점·쇼핑몰 소비자 보고서(2007)*에는 중국의 20~30대 여성이 의복구입 시 고려하는 중요 속성은 맞춤새, 디자인, 활동성 순서라고 하였고, 중국 패션전문가인 김태수(2004)는 가격, 디자인, 품질, 활동성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디자인은 중국 여성이 의복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고, 각 아이템들의 조합

이 의복 스타일을 결정하기 때문에 거대국가 중국의 주요 도시별로 선호되는 의복 스타일을 파악하고 이들의 코디네이션을 한국과 비교분석하는 것은 중국 패션시장의 성공적인 진입의 중요한 요건이 된다고 사료된다.

중국 패션산업과 관련된 선행연구 중, 마케팅 측면에서 손미영 외(2007), 정홍숙, 강근영(2004), 신수연, 장은영(2007), 김미정 외(2006) 등은 중국 패션산업이 갖는 경쟁력의 원천을 고찰하고 한국 패션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향을 탐색하였고, 왕야, 김용숙(2007), 왕해연, 김용숙(2005), 박혜원 외(2005), 김정원, 척립(2006), 김용준(2007) 등은 중국 신세대 여성들의 의복행동을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의복구성 측면에서 임순 외(2003), 심부자, 권영자(2003), 석혜정, 김인숙(2007), 장희경 외(2001), 위혜정, 손희순(2006)은 중국 여성 혹은 여대생의 체형군을 분류하여 거주지역별 체형의 특성 비교 혹은 한국 의류제품의 중국 여성 체형 적합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디자인 측면에서 김재은, 박길순(2004)은 중국 신세대의 패션에 한류 현상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였고, 김찬주, 노미경(2006), 임순 외(2001)는 중국과 한국의 스트리트 패션 혹은 데님 패션 비교를 통해 양국 간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최경희(2004, 2005)는 베이징의 스트리트 패션을 조사하였고, 오현아, 배수정(2005), 천지영, 배수정(2006), 배수정(2007a, 2007b), 배수정, 오현아(2007), 배수정 외(2008), 백정현, 배수정(2008)은 동북지역 다롄(大連), 셴양(沈陽), 하얼빈(哈爾濱) 등의 스트리트 스타일을 조사하여 선호디자인을 분석한 연구를 행하였다. 그러나 디자인 측면에서 한국과 중국의 의복 스타일별 의복색, 액세서리, 코디네이션의 비교·분석은 그다지 활발하게 연구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를 계획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패션브랜드가 집중적으로 진출해 있는 중국의 도시 중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의 스트리트 스타일을 서울의 스트리트 스타일과 비교분석하여 중국 패션시장 내에서 한국 패션브랜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 서울과 비교할 중국의 도시로 베이징, 상하이로 선정한 이유는 상하이와 베이징

의 경우 GDP(Gross Domestic Product) 순위에 있어 중국 내 1, 2위를 점유하고 있는 거대한 소비시장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주요 패션브랜드들이 진출해 있으며, 또한 한국의 수도 서울에 필적할 만한 중국의 대표적인 패션도시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한국 패션산업 현황

한국의 섬유·패션산업은 1960년대부터 1990년까지 약 40년간 국민경제를 이끈 주요 산업이었다. 그러나 1997년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지원을 받은 경제위기 이후 패션산업이 약화됨에 따라,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섬유·패션산업의 생산비중 추이는 2001년도 7.0%에서 2007년도 3.8%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섬유·패션제품수출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2005년 섬유 쿼터폐지를 기점으로 그 하락속도가 급격히 빨라졌다(신수연, 조정아, 2009). 이러한 수출 감소세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의 2008년도 세계 의류수출시장 점유율에서도 확인되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07년 한국의 수출비중은 13% 감소하였고 대만(-12%), 미국(-9%), 필리핀(-7%), 멕시코(-7%)도 역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와 반대로 베트남(29%), 마다가스카르(18%), 이집트(23%), 캄보디아(13%)와 같이 개발도상국들의 섬유·패션제품수출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08).

또한 한국 패션시장은 내수경기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아오고 있는데, 2002년 이후 국내 패션시장은 낮은 민간소비 증가율 및 소비자 기대지수, 주요 유통채널의 부진 등 전반적인 경기부진의 영향을 받았고, 2003년 이후 경기회복과 더불어 구매력이 회복되면서 시장성장 및 실적개선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소비심리회복이 불완전한 가운데 2008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다시 소비심리의 위축, 자산가치의 하락에 따른 소비감소를 불러일으켜 패션시장도 침체의 골이 깊게 되었다(정귀수, 김유진, 2009).

최근 한국 패션협회가 실시한 한국 패션산업조사(KFI research)에 따르면 2009년 한국 패션시장의 규모는 26조 7천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복종별로는 스포츠, 캐주얼, 내의류가 시장 성장을 주도하였다고 한다(“올해 한국

패션시장”, 2009). 경기침체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여성 정장의 경우 2008년 시장규모가 2.5% 증가에 그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여성 취업인구의 감소 및 실업률 상승 등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여성 정장시장은 중소기업체들이 다소 포진해 있어 불황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고, 다수의 브랜드들이 정리되면서 성장세 둔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아이템별 규모로는 남성 신사복시장이 2조 1000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형성하였고, 일반 스포츠 의류가 1조 90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아웃도어 의류부문은 1조 6000억원으로 남성 신사복과 일반 스포츠 의류에 이어 세 번째 큰 시장으로 조사되었다(“국내 추동 패션시장”, 2009).

### 2. 중국 패션산업 현황

중국의 패션산업은 1980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급성장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현재는 안정적 성장기에 진입하였다(손미영, 2007). 특히 섬유·패션제품의 경우, 미국 시장의 중국산 섬유류 점유율은 2003년 기준 45%, 세계 시장에서의 의류제품 점유율 또한 18.8%로 세계 1위이며 세계 유일의 섬유류 3대(제조, 소비, 교역)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의 패션 관련 대중국 투자가 활성화되었다(김태수, 2004).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의 위안화 절상,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등으로 중국산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하락하는 가운데 세계적인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중국의 대외수출이 급감하자 중국 정부는 수출위주에서 내수위주로 경제성장 구조를 선회하였다(KOTRA, 2009).

수출증가로 인한 중국인들의 소득증가는 중국의 소비시장을 확장하였고, 이는 소비확대로 이어졌다. 중국의 민간소비 총액은 개혁개방이 시작된 1978년 1,759억 위안이었으나, 1990년에는 9,450억 위안, 2000년에는 4조 5,854억 위안, 2007년 9조 3,317억 위안(1조 2,788억 달러-2007년 말 환율 7.2971 적용)에 달하고 있다(지만수 외, 2008). 이러한 소비시장의 성장과 함께 2000년 이후 중국 패션시장은 연평균 14%의 신장세를 보이며 발전하여, 2008년 기준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의류생산국이자 의류소비국이 되었다(“중국 소비시장의 新조류”, 2007). 특히 여성복, 스포츠, 캐주얼 의류시장은 빠른 속도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의류산업의 발전에는 중국의 정책 변화도 중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후진타오(胡錦濤; 1942~) 총서기가 2002년 집권한 이후 장기적인 발전계획과 더불어 세부적인 중·단기 경제개발계획을 제시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독려했다(김용준, 2006). 2002년 중국은 2020년까지 GDP를 2000년의 4배로 증가시켜 ‘전면적인 샤오강(小康) 사회(국민소득 5000 달러 이상의 사회)’를 실현한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 중심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민간투자, 외자유치, 내수시장증진과 함께 낙후된 서부 대개발 사업, 동북 3성 개발사업, 빈부격차 줄이기와 실업해소정책, 상하이 엑스포와 같은 국가적 행사를 추진 중에 있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김용준, 2006).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많은 패션기업들이 기술개발과 인력양성보다는 생산에 매진하고 있으며 디자인, 브랜드, 혁신을 중요시하지 않고 있다. 결국 국제적 브랜드의 부재와 함께 광활한 중국 영토의 지역별 패션소비자에 관한 연구가 미흡해 중국 패션산업의 취약점이 되고 있다(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07). 이는 중국 패션시장에 진출할 한국 패션기업의 기회요인이면서 동시에 중국 내 패션비즈니스와 관련된 리스크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 3. 베이징과 상하이의 패션시장 특성

베이징과 상하이는 고소득층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고 고급제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며, 앵겔지수가 떨어지는 공통적인 현상을 보이지만, 이 두 도시에는 각기 다른 패션문화와 패션시장 특성이 존재한다.

먼저 베이징은 내부를 지향하는 위계질서와 형식주의의 문화를 보여주는 한편, 자기중심적인 중화주의(中華主義)와 경파(京派)문화의 특색도 가지고 있다. 베이징은 중국의 수도이자 정치중심지로 관공서와 고위관료들이 많아 권력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하다. 중앙의 통제가 잘되고 국영기업이 많다는 특징이 있는 한편, 관료적이고 보수적이며 지나치게 경직되어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거래에 있어 계약서 보다는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특징이 있다. 중국 현대사의 격변기마다 소용돌이의 중심지가 되어왔던 베이징 시민들은 민족적 자부심이 강해 특정 문제에 대해 거시적이고 집단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양동평, 2006/2008).

베이징 소비자들의 경우 가격민감도가 상하이 보

다 낮게 나타나며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분명하다. 또한 특유의 체면의식 때문에 과시적 소비성향이 강하고 심리적 즐거움과 고품격을 추구하기 때문에 몇 달치의 월급을 모아서 명품을 구매하곤 한다. 또한 국산 브랜드를 좋아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60%에 달해 자국 브랜드 선호도가 상하이보다 높게 나타난다(“중국의 지역문화”, 2006). 이러한 베이징 소비자의 성향은 패션시장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한편 1920~30년대 ‘동방의 파리(Paris)’라 불린 상하이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조계지가 된 역사가 있어 서양 문화의 영향을 일찍부터 받았고, 이주민들에게서 외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상하이는 외국 문물의 조기개방 덕분에 제도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고 외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며 국제화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다(양동평, 2006/2008).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상하이 사람들은 타인의 생활방식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여 시민문화(대중문화)를 중심으로 한 해파(海派) 문화를 발전시켰다. 또한 이들은 우월감이 높고 타 지역 사람들에 대한 배타적인 성격이 강하다.

베이징이 남성 중심의 도시라면 상하이는 여성 중심의 도시라고 해도 될 만큼 여성이 소비를 주도한다. 깔끔함과 우아함을 중시하는 상하이 사람들은 패션제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도 품질과 분위기를 중시하면서도 가격에 대해 매우 민감해 전국에서 가장 까다로운 시장이라는 평을 받는다. 또한 상하이 소비자들은 베이징과 달리 외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중국의 지역문화”, 2006). 특히 상하이의 패션을 주도하는 계층이 외자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므로 패션에 대한 눈높이가 국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트렌드에 목마른”, 2008).

바이성(百盛) 백화점의 최고경영자인 류징두안(劉敬鵬)은 두 도시의 패션시장 특성을 “상하이에서 패션을 이해하는 소비자가 10명 중 4~5명이라면 베이징은 2~3명 정도이다.”라고 평가한다. 이는 단적으로 베이징과 상하이의 패션수준을 설명하고 있다. 현재 상하이는 중국의 유행과 패션을 선도하면서 개성이 강한 디자인과 독창적인 아이템을 추구하는 중국 제일의 패션도시이고, 베이징은 빠른 경제발전과 함께 상하이의 뒤를 이어 점차 패션수준을 높이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 공통점이라면 두 도시 모두 패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상상 이상으로 높다는 것이다(“차이나 패션주간”, 2008).

### III. 연구방법 및 내용

연구의 방법으로는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이론적 연구에서는 한·중 패션산업 현황을 각종 문헌자료 및 관련 기관의 통계자료를 참고로 한국과 중국의 패션산업 현황과 베이징과 상하이의 패션시장 특성을 고찰하고, 실증적 연구에서는 2009년 여름 서울, 상하이, 베이징의 스트리트 패션을 현지촬영조사를 통해 실시한 후, 여기에서 얻어진 사진자료를 스타일별로 분류하여 선호되는 스타일의 착장 특성을 비교분석한다.

도시별 주요 촬영지역은 패션 스트리트로 유명한 2곳을 선정하였는데, 서울은 명동과 압구정동 부근, 상하이는 난징루와 쓰촨루 부근, 베이징은 왕푸징가와 시단 부근에서 디지털 카메라와 캠코더를 이용하여 병행 촬영하였으며, 촬영은 2009년 7월 1부터 7월 15일까지 각 도시별 선정된 장소에서 출, 퇴근 시간대와 정오 무렵 매일 2회씩 실시하였다. 선명한 전신 착장 사진자료 중 20~30대 여성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도시별로 200점씩 추출하여 총 600점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스타일별 분류는 패션을 전공한 석사 이상의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본 연구에서 정의된 스타일에 따라 분류하였다. 스타일을 분류한 결과 클래식, 페미닌, 이지캐주얼, 로맨틱캐주얼, 캐릭터캐주얼, 스포츠캐주얼 총 6가지 스타일로 분류되었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각 스타일별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클래식 스타일은 성숙한 취향으로 보수적인 이미지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많이 착용되는 스타일을 의미하는데(이경림 외, 2009), 본 연구에서는 한 벌 개념의 테일러드 정장, 샤넬 슈트, 단정한 블라우스와 테일러드 팬츠/스커트, 정장풍 원피스와 카디건 등에 펌프스나 샌들이 코디네이션 된 스타일을 포함한다.

페미닌 스타일은 우아하고 성숙한 여성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스타일로(김월순 외, 2004), 본 연구에서는 쉬폰, 오간자 등 섬세하고 부드러운 소재로 제작된 여성스러운 블라우스와 스커트, 카디건과 X-자형 실루엣의 여성스러운 원피스 등에, 여성스러운 액세서리가 코디네이션 된 스타일을 포함한다. 이지캐주얼 스타일은 편안하고 활동성 있는 의복으로 가장 일상적으로 착용되는 스타일을 의미하며(김월순 외, 2004), 본 연구에서는 여유있는 티셔츠에 진 팬츠, 면 팬츠/스커트를 코디네이션하고, 캐주얼한 감각의 신발, 모자 등을 코디네이션 한 경우를 이지캐주얼 스타일로 보았다. 로맨틱캐주얼 스타일은 퍼프 슬리브, 벌룬 스커트처럼 과장되고 귀여운 이미지가 부각된 스타일로(간문자, 2007), 본 연구에서는 프릴이나 레이스, 자수, 리본 장식 등 소녀적 감성의 디테일 및 트리밍이 부가된 블라우스와 스커트 혹은 귀여운 원피스 스타일에 펌프스나 샌들이 코디네이션 된 스타일을 포함시켰다. 캐릭터캐주얼 스타일은 개인의 독특한 개성을 표현하는 경쾌한 스타일을 의미하며(류은희, 한정숙, 1997), 본 연구에서는 독특하고 개성적인 레이어드 스타일이나 색, 소재, 아이템의 믹스매치 스타일 등 뚜렷한 의복규범이 있지 않는 개인만의 독특한 스타일링법이 가미된 스타일을 포함하였다. 스포츠캐주얼 스타일은 일반적인 캐주얼 스타일에 스포츠웨어의 요소를 가미한 스타일로(간문자, 2007), 본 연구에서는 점퍼, 후드점퍼에 트레이닝 팬츠를 코디네이션 한 스타일과 탱크탑, 맨투맨 셔츠, 스웨트 셔츠에 스니커즈, 팩백, 베이스볼 캡 등의 액세서리가 코디네이션 된 스타일을 스포츠캐주얼 스타일로 보았다.

분석도구는 WINDOW용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스타일, 의복색, 액세서리의 평균, 퍼센트, 빈도분석을 행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

<표 1> 스트리트 스타일 조사항목

스타일		캐주얼									포 멀					
		이지 캐주얼		로맨틱 캐주얼			캐릭터 캐주얼		스포츠 캐주얼		클래식			페미닌		
의복색	상 의	R	YR	Y	YG	G	BG	B	PB	P	RP	White	Gray	Black	Multi	
	하 의	R	YR	Y	YG	G	BG	B	PB	P	RP	White	Gray	Black	Multi	
	원피스	R	YR	Y	YG	G	BG	B	PB	P	RP	White	Gray	Black	Multi	
액세서리	가 방	트드백					슬더백				크로스백					
	신 발	펌프스		샌 들			슬리퍼			통센들			스니커즈			
	기 타	양 산			선글라스				모 자			머플러(스카프 포함)				

과 같다. 참고로 세 도시의 2009년 7월 평균기온은 서울 25.3도, 상하이 28.2도, 베이징 26.2도로, 상하이가 서울, 베이징보다 평균기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세계기후자료”, 2009).

**IV. 결과 및 고찰**

2009년 여름 서울, 상하이, 베이징의 스트리트 스타일을 조사한 결과 주로 유행하는 스타일을 다음과 같은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포멀웨어에서는 클래식 스타일과 페미닌 스타일이 주를 이루었고, 캐주얼웨어에서는 이지캐주얼, 로맨틱캐주얼, 캐릭터캐주얼, 스포츠캐주얼이 주를 이루었다. 도시별 스트리트 스타일 빈도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1. 페미닌 스타일**

페미닌 스타일은 서울에서는 3.5%의 낮은 빈도를 보였지만, 베이징에서는 23.0%로 이지캐주얼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상하이에서도 13.5%의 빈도로 나타났다. 주요 아이템은 원피스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던 상하이와 베이징은 <그림 2>~<그림 3>처럼 타이트하고 상체를 노출한 스타일이 많았다. 이러

한 결과는 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여름에는 페미닌 스타일에 대담하게 신체를 노출한 스타일이 많았다는 최경희(2005), Bae(2007), 배수정 외(2008)의 결과와 일치한다. 페미닌 스타일에서 주로 나타나는 의복색은 <표 3>에 제시된 것처럼 도시별 차이가 크지 않지만, 원피스에서는 다색의 빈도가 확연히 높고, 그 중에서도 베이징에서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인 빈도를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페미닌 스타일의 원피스에는 다색이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S/S 시즌 원피스에는 <그림 1>, <그림 3>과 같은 다양한 문양이나 색이 혼합된 소재의 사용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4>에 제시된 페미닌 스타일의 액세서리 착용빈도를 보면 각 도시별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베이징에서 숄더백과 샌들이 높은 빈도를 보인다. 특히 숄더백은 빅솔더백이 세 도시 모두에서 다수 관찰되었으며, 특히 상하이와 베이징에서는 스타일과 무관하게 빅백, 샌들, 양산의 코디네이션이 많이 관찰되었다.

<표 2> 서울, 상하이, 베이징 스트리트 스타일 분류 (단위: n(%))

스타일	서울	상하이	베이징
페미닌 스타일	7( 3.5)	27( 13.5)	46( 23.0)
클래식 스타일	13( 6.5)	9( 4.5)	11( 5.5)
이지캐주얼	127( 63.5)	74( 37.0)	73( 36.5)
로맨틱캐주얼	34( 17.0)	55( 27.5)	45( 22.5)
캐릭터캐주얼	19( 9.5)	33( 16.5)	18( 9.0)
스포츠캐주얼	0( 0.0)	2( 1.0)	7( 3.5)
합 계	200(100.0)	200(100.0)	200(100.0)



<그림 1> 서울 페미닌 스타일



<그림 2> 상하이 페미닌 스타일



<그림 3> 베이징 페미닌 스타일

<표 3> 페미닌 스타일 의복색 비교표

(단위: n(%))

분 류	상 의			하 의			원피스		
	서울	상하이	베이징	서울	상하이	베이징	서울	상하이	베이징
단 색	1( 33.3)	1( 9.1)	0( 0.0)	0( 0.0)	2( 22.2)	0( 0.0)	2( 33.3)	5( 27.8)	4( 10.8)
무채색	2( 66.7)	6( 54.5)	5( 55.6)	0( 0.0)	4( 44.4)	2( 40.0)	0( 0.0)	1( 5.6)	9( 24.3)
다 색	0( 0.0)	4( 36.4)	4( 44.4)	1(100.0)	3( 33.3)	3( 60.0)	4( 66.7)	12( 66.7)	24( 64.9)
합 계	3(100.0)	11(100.0)	9(100.0)	1(100.0)	9(100.0)	5(100.0)	6(100.0)	18(100.0)	37(100.0)

위 표에서 다색은 체크무늬, 스트라이프, 프린트 등 소재 전체에 문양이 부가된 경우로 한정하였다.

<표 4> 페미닌 스타일 액세서리 비교표  
(단위: n(%))

구 분	액세서리	서 울	상하이	베이징
가 방	토드백	0( 0.0)	10( 43.5)	13( 33.3)
	숄더백	4(100.0)	10( 43.5)	22( 56.4)
	크로스백	0( 0.0)	3( 13.0)	4( 10.3)
	합 계	4(100.0)	23(100.0)	39(100.0)
신 발	펌프스	3( 42.9)	10( 37.0)	14( 30.4)
	샌 들	3( 42.9)	9( 33.3)	21( 45.7)
	슬리퍼	0( 0.0)	3( 11.1)	9( 19.6)
	통샌들	1( 14.3)	5( 18.5)	1( 2.2)
	스니커즈	0( 0.0)	0( 0.0)	1( 2.2)
	합 계	7(100.0)	27(100.0)	46(100.0)
기 타	양 산	0( 0.0)	1( 50.0)	2( 66.7)
	선글라스	0( 0.0)	1( 50.0)	0( 0.0)
	머플러	0( 0.0)	0( 0.0)	0( 0.0)
	모 자	0( 0.0)	0( 0.0)	1( 33.3)
	합 계	0( 0.0)	2(100.0)	3(100.0)

## 2. 클래식 스타일

클래식 스타일은 서울에서는 7.5%, 베이징 6.5%, 상하이 4.5%의 낮은 빈도로 나타났다. 중국의 동북지역을 주요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하절기에는 클래식 스타일의 착용빈도가 낮게 나타났는데(배수정 외, 2008; 배수정, 오현아, 2007; 천지영, 배수정, 2006; Bae, 2007; Bae et al., 2008), 본 연구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클래식 스타일은 세 도시 모두에서 착용방법의 큰 차이 없이 원피스와 가디건, 테일러드 팬츠와 블라우스, 테일러드 수트 등의 조합으로 착용되고 있었다. 이 역시 페미닌 스타일과 마찬가지로 서울에서는 <그림 4>처럼 단정한 스타일인 반면, 상하이와 베이징은 <그림 5>-<그림 6>처럼 슬리브리스 블라우스나 미니스커트 등의 착용으로 신체의 노출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클래식 스타일의 주요 의복색은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상의에서



<그림 4>  
서울  
클래식 스타일



<그림 5>  
상하이  
클래식 스타일



<그림 6>  
베이징  
클래식 스타일

는 무채색의 빈도가 대체적으로 높았는데, 특히 White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하의 역시 주로 Gray 계열과 Black 등 단색의 빈도가 높았고, 도시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원피스에서는 페미닌 스타일과 마찬가지로 다색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포멀웨어에서 원피스 스타일은 다색이 선호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도시 간 의복색의 차이는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6>에 제시된 클래식 스타일의 액세서리 착용빈도를 보면, 각 도시별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서울에서는 <그림 4>와 같은 오픈토 펌프스가 높은 빈도를 보였고, 상하이에서는 <그림 5>와 같은 양산의 출현빈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상하이의 클래식 스타일에서도 페미닌 스타일처럼 일광차단용 액세서리인 양산이 선호되는 액세서리임을 알 수 있다.

## 3. 이지캐주얼 스타일

이지캐주얼 스타일은 서울, 상하이, 베이징에서 모두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 스타일로, 특히 서울에

<표 5> 클래식 스타일 의복색 비교표 (단위: n(%))

분 류	상 의			하 의			원피스		
	서 울	상하이	베이징	서 울	상하이	베이징	서 울	상하이	베이징
단 색	1( 8.3)	0( 0.0)	0( 0.0)	3( 30.0)	2( 40.0)	0( 0.0)	1( 6.3)	1( 25.0)	1( 12.5)
무채색	11( 91.7)	4( 80.0)	2( 66.7)	7( 70.0)	1( 20.0)	2(100.0)	4( 25.0)	1( 25.0)	3( 37.5)
다 색	0( 0.0)	1( 20.0)	1( 33.3)	0( 0.0)	2( 40.0)	0( 0.0)	11( 68.7)	2( 50.0)	4( 50.0)
합 계	12(100.0)	5(100.0)	3(100.0)	10(100.0)	5(100.0)	2(100.0)	16(100.0)	4(100.0)	8(100.0)

**<표 6> 클래식 스타일 액세서리 비교표**  
(단위: n(%))

구 분	액세서리	서 울	상하이	베이징
가 방	토드백	2( 25.0)	2( 33.3)	4( 66.7)
	솔더백	6( 75.0)	4( 66.7)	2( 33.3)
	크로스백	0( 0.0)	0( 0.0)	0( 0.0)
	합 계	8(100.0)	6(100.0)	6(100.0)
신 발	펌프스	10( 76.9)	2( 22.2)	4( 36.4)
	샌 들	3( 23.1)	6( 66.7)	4( 36.4)
	슬리퍼	0( 0.0)	1( 11.1)	1( 9.1)
	통샌들	0( 0.0)	0( 0.0)	0( 0.0)
	스니커즈	0( 0.0)	0( 0.0)	2( 18.2)
	합 계	13(100.0)	9(100.0)	11(100.0)
기 타	양 산	0( 0.0)	3(100.0)	0( 0.0)
	선글라스	0( 0.0)	0( 0.0)	0( 0.0)
	머플러	0( 0.0)	0( 0.0)	0( 0.0)
	모 자	0( 0.0)	0( 0.0)	0( 0.0)
	합 계	0( 0.0)	3(100.0)	0( 0.0)

서의 빈도는 63.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세 도시에서 2009년 여름에 가장 선호된 이지캐주얼 스타일은 서울에서는 티셔츠와 미니스커트의 매치가 가장 많았고, 베이징과 상하이에서는 티셔츠와 숏팬츠 매치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하절기에 중국 여성들이 스커트보다 바지를 선호한다고 제시한 것과 같은 결과를 보인다(김효숙, 2000; 배수정 외, 2008; 배수정, 오현아, 2007; Bae, 2007; Bae et al., 2008). 전 세계적인 추세가 하의에 있어서 미니의 경향을 보임에 따라 서울 및 베이징, 상하이에서도 <그림 7>-<그림 9>처럼 공통적으로 길이가 짧은 하의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지캐주얼과 로 맨틱캐주얼에서는 하의에 레깅스를 레이어드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시즌이 S/S이기 때문에 보온을 위한 것이 아닌, 레이어드 룩의 유행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 현상 역시 세 도시 모두에서 관찰되었으므로 레깅스 레이어드는 세 도시의 유행 수용 속도에 있어

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지캐주얼에서 주로 나타나는 의복색은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상의에서 서울은 무채색(White), 상하이와 베이징은 다색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하의는 세 도시 모두에서 무채색(Black)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이외에 하의에서는 세 도시 모두 B 계열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진 의류를 이지캐주얼로 분류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진 의류를 진캐주얼로 따로 분류하지 않고 이지캐주얼로 분류한 이유는 진캐주얼의 경우 소재를 중심으로 스타일을 구분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스타일 분류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표 8>에 제시한 이지캐주얼 스타일의 액세서리 착용빈도를 보면, 세 도시 모두 솔더백의 착용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주로 이지캐주얼이 실용성과 착용시의 편안함을 중시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손의 사용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솔더백이 높은 빈도로 착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그림 8>과 같은 빅솔더백과 샌들 혹은 스니커즈의 코디네이션은 세 도시 모두에서 유사한 빈도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7>  
서울  
이지캐주얼



<그림 8>  
상하이  
이지캐주얼



<그림 9>  
베이징  
이지캐주얼

**<표 7> 이지캐주얼 스타일 의복색 비교표**

(단위: n(%))

분 류	상 의			하 의			원피스		
	서 울	상하이	베이징	서 울	상하이	베이징	서 울	상하이	베이징
단 색	41( 35.3)	7( 10.8)	13( 19.4)	58( 46.4)	23( 35.9)	27( 42.2)	3( 25.0)	3( 30.0)	1( 10.0)
무채색	54( 46.6)	16( 24.6)	15( 22.4)	67( 53.6)	40( 62.5)	30( 46.9)	2( 16.7)	4( 40.0)	0( 0.0)
다 색	21( 18.1)	42( 64.6)	39( 58.2)	0( 0.0)	1( 1.6)	7( 10.9)	7( 58.3)	3( 30.0)	9( 90.0)
합 계	116(100.0)	65(100.0)	67(100.0)	125(100.0)	64(100.0)	64(100.0)	12(100.0)	10(100.0)	10(100.0)



<표 8> 이지캐주얼 스타일 액세서리 비교표  
(단위: n(%))

구 분	액세서리	서 울	상하이	베이징
가 방	도드백	32( 32.3)	15( 21.4)	9( 15.5)
	숄더백	56( 56.6)	36( 51.4)	34( 58.6)
	크로스백	11( 11.1)	19( 27.1)	15( 25.9)
	합 계	99(100.0)	70(100.0)	58(100.0)
신 발	펌프스	27( 21.3)	17( 23.0)	13( 17.8)
	샌 들	44( 34.6)	11( 14.9)	16( 21.9)
	슬리퍼	7( 5.5)	9( 12.2)	7( 9.6)
	통샌들	19( 15.0)	18( 24.3)	11( 15.1)
	스니커즈	30( 23.6)	19( 25.7)	26( 35.6)
	합 계	127(100.0)	74(100.0)	73(100.0)
기 타	양 산	0( 0.0)	2( 50.0)	0( 0.0)
	선글라스	0( 0.0)	0( 0.0)	0( 0.0)
	머플러	0( 0.0)	0( 0.0)	0( 0.0)
	모 자	1(100.0)	2( 50.0)	0( 0.0)
	합 계	1(100.0)	4(100.0)	0( 0.0)

4. 로맨틱캐주얼 스타일

로맨틱캐주얼 스타일은 서울에서는 17.5%, 상하이에서는 27.5%로, 이지캐주얼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베이징에서는 21.5%로 세 번째로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아이템은 세 도시 모두 원피스로, 서울에서는 미니길이의 H-라인 원피스가, 베이징과 상하이에서는 미니 X-라인 원피스가 가장 빈도가 높았다. 특히 원피스는 <그림 10>-<그림 12>에 제시된 것처럼 레깅스, 가디건, 셔츠 등과 함께 레이어드로 착용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경향은 세 도시에서 모두 유사한 빈도로 나타났다. 로맨틱캐주얼의 주요 의복색은 <표 9>에 제시된 것처럼 상의에서 서울과 상하이는 무채색(White)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베이징에서는 다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의에서 서울과 상하이는 무채색(Black)이, 상하이에서는 단색 중 B 계열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원피스에서는 세

도시 모두에서 다색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름이라는 계절적 요인과 더불어, 원피스에 화려하고 대담한 문양의 소재가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는 원피스가 주요 아이템인 페미닌 스타일과도 같은 결과이다. 또한 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인 최경희(2004)와 Bae(2007)의 페미닌 스타일에는 대담한 문양의 원피스의 착용빈도가 높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표 10>에 제시된 로맨틱캐주얼 스타일의 액세서리 착용빈도를 보면, 세 도시 모두 숄더백의 착용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역시 이지캐주얼과 마찬가지로 착용시의 기능성과 활동의 자유를 중시하는 캐주얼의 특성 때문에 손의 사용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림 10>과 같은 빅숄더백과 샌들 혹은 펌프스의 코디네이션은 세 도시 모두에서 유사한 빈도로 높게 나타났다. 특이점은 20~30대 서울 여성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양산의 사용이 상하이와 베이징에서는 상당히 나타난 점이다. 이러한 양산의 선호는 로맨틱캐주얼 이외의 다른 모든 스타일에도 낮은 빈도이기는 하지만 일관성있게 관찰되고 있다.



<그림 10> 서울 로맨틱캐주얼



<그림 11> 상하이 로맨틱캐주얼



<그림 12> 베이징 로맨틱캐주얼

<표 9> 로맨틱캐주얼 스타일 의복색 비교표

(단위: n(%))

분 류	상 의			하 의			원피스		
	서 울	상하이	베이징	서 울	상하이	베이징	서 울	상하이	베이징
단 색	5( 22.7)	6( 20.7)	6( 28.6)	9( 40.9)	13( 44.8)	7( 35.0)	1( 6.3)	5( 17.2)	3( 12.0)
무채색	15( 68.2)	13( 44.8)	7( 33.3)	12( 54.6)	13( 44.8)	8( 40.0)	4( 25.0)	8( 27.6)	4( 16.0)
다 색	2( 9.1)	10( 34.5)	8( 38.1)	1( 4.5)	3( 10.3)	5( 25.0)	11( 68.7)	16( 55.2)	18( 72.0)
합 계	22(100.0)	29(100.0)	21(100.0)	22(100.0)	29(100.0)	20(100.0)	16(100.0)	29(100.0)	25(100.0)

<표 10> 로맨틱캐주얼 스타일 액세서리 비교표  
(단위: n(%))

구 분	액세서리	서 울	상하이	베이징
가 방	토드백	7( 24.1)	7( 17.9)	10( 31.3)
	숄더백	17( 58.6)	25( 64.1)	17( 53.1)
	크로스백	5( 17.2)	7( 17.9)	5( 15.6)
	합 계	29(100.0)	39(100.0)	32(100.0)
신 발	펌프스	15( 44.1)	11( 20.0)	14( 31.1)
	샌 들	15( 44.1)	19( 34.5)	12( 26.7)
	슬리퍼	0( 0.0)	11( 20.0)	3( 6.7)
	통샌들	2( 5.9)	9( 16.4)	10( 22.2)
	스니커즈	2( 5.9)	5( 9.1)	6( 13.3)
	합 계	34(100.0)	55(100.0)	45(100.0)
	기 타	양 산	0( 0.0)	6( 75.0)
선글라스		0( 0.0)	0( 0.0)	1( 25.0)
머플러		0( 0.0)	0( 0.0)	0( 0.0)
모 자		0( 0.0)	2( 25.0)	0( 0.0)
합 계		0( 0.0)	8(100.0)	4(100.0)

5. 캐릭터캐주얼 스타일

캐릭터캐주얼 스타일은 서울에서는 6.0%, 베이징 6.0%, 상하이 15.0%의 빈도로 나타났다. 상하이에서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은 것은 국제적인 패션감각과 개성적인 스타일을 추구하는 상하이 여성의 패션 특성(“차이나 패션주간”, 2008)을 보여준다. <그림 14>에 제시된 것과 같은 화려한 색의 팬츠, 머리 장식 등은 강한 착용자의 개성을 표출하고 있으며, 이는 상하이 여성들의 개방적이고 서구지향적인 사고의 반영이라고 사료된다. <그림 13>에 제시된 서울의 캐릭터캐주얼 스타일은 검정색으로 통일된 보다 차분한 스타일을 연출하고 있으며, <그림 15>의 베이징의 캐릭터캐주얼은 의복의 아이템에 있어서는 평범한 티셔츠와 숏팬츠이지만 여기에 부가된 문양이 미국 성조기에 사용된 스트라이프와 별문양의 응용이고, 하의에는

군복에 사용되는 문양이 사용되어 매우 개성적인 스타일을 완성하고 있다. 특히 커다란 숄더백과 페도라는 착용자의 개성을 더욱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서울의 캐릭터캐주얼은 보다 차분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유지하는 반면, 상하이와 베이징의 캐릭터캐주얼은 강하게 착용자의 개성을 표출하는 차이가 있다. 캐릭터캐주얼의 주요 의복색은 <표 11>에 제시된 바처럼 상의에서 서울은 White, Black 등 무채색의 빈도가 높은 반면, 베이징, 상하이에서는 다색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하의에서는, 서울은 무채색(Black)이 높은 빈도를 보인 반면, 상하이와 베이징은 단색(B 계열)이 높은 빈도를 보이는 차이가 있었다. <표 12>에 제시된 캐릭터캐주얼 스타일의 액세서리 착용빈도를 보면, 다른 스타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세 도시 모두 숄더백의 착용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신발은 서울과 상하이에서는 샌들이, 베이징에서는 펌프스와 스니커즈의 빈도가 높았다. 특히 베이징과 상하이에서는 <그림 14>-<그림 15>와 같은 모자의 착용 및 강렬한 색대비로 착용자의 개성을 강하게 표출하는 점에 있어서 서울과 차이를 보인다.



<그림 13> 서울 캐릭터캐주얼



<그림 14> 상하이 캐릭터캐주얼



<그림 15> 베이징 캐릭터캐주얼

<표 11> 캐릭터캐주얼 스타일 의복색 비교표

(단위: n(%))

분 류	상 의			하 의			원피스		
	서 울	상하이	베이징	서 울	상하이	베이징	서 울	상하이	베이징
단 색	5( 27.8)	3( 11.1)	1( 6.2)	5( 31.3)	12( 48.0)	8( 53.3)	2( 66.7)	1( 12.5)	1( 25.0)
무채색	11( 61.1)	8( 29.6)	4( 25.0)	10( 62.5)	12( 48.0)	4( 26.7)	1( 33.3)	5( 62.5)	2( 50.0)
다 색	2( 11.1)	16( 59.3)	11( 68.8)	1( 6.2)	1( 4.0)	3( 20.0)	0( 0.0)	2( 25.0)	1( 25.0)
합 계	18(100.0)	27(100.0)	16(100.0)	16(100.0)	25(100.0)	15(100.0)	3(100.0)	8(100.0)	4(100.0)

<표 12> 캐릭터캐주얼 스타일 액세서리 비교표  
(단위: n(%))

구 분	액세서리	서 울	상하이	베이징
가 방	토드백	5( 33.3)	4( 14.8)	1( 7.1)
	숄더백	8( 53.3)	19( 70.4)	7( 50.0)
	크로스백	2( 13.3)	4( 14.8)	6( 42.9)
	합 계	15(100.0)	27(100.0)	14(100.0)
신 발	펌프스	6( 31.6)	6( 18.2)	8( 44.4)
	샌 들	9( 47.4)	13( 39.4)	1( 5.6)
	슬리퍼	2( 10.5)	3( 9.1)	2( 11.1)
	통샌들	1( 5.3)	2( 6.1)	1( 5.6)
	합 계	19(100.0)	33(100.0)	18(100.0)
기 타	양 산	0( 0.0)	0( 0.0)	1( 50.0)
	선글라스	0( 0.0)	0( 0.0)	0( 0.0)
	머플러	0( 0.0)	0( 0.0)	0( 0.0)
	모 자	1(100.0)	1(100.0)	1( 50.0)
	합 계	1(100.0)	1(100.0)	2(100.0)

## 6. 스포츠캐주얼 스타일

스포츠캐주얼 스타일은 서울에서는 전혀 관찰되지 않았고, 베이징 3.5%, 상하이 1.0%의 가장 낮은 빈도로 나타났다. 베이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은 아직 베이징 올림픽의 영향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베이징 올림픽 이전의 선행연구에 제시된 스포츠캐주얼 착용빈도는 이보다 높게 나타났으므로(배수정, 2007a, 2007b; 배수정 외, 2008; 백정현, 배수정, 2008; 오현아, 배수정, 2005; Bae, 2007; Bae et al., 2008), 이상과 같은 결과는 착용빈도의 감소를 분명히 보여준다. 스포츠캐주얼의 주요 의복색은 <표 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상의에서 베이징은 다색이 가장 높았으며 상하이는 무채색과 단색이 각각 한건씩 관찰되었다. 하의에서도 베이징은 다색이 가장 높았고, 상하이는 단색이 각각 한건씩 관찰되었다. <표 14>에 제시된 스포츠캐주얼 스타일의 액세서리 착용빈도를 보면, 상하이와 베이징에서 스니커즈의 착용빈도가 높았고, 모자와 양산으로 일광을 차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앞서 다룬 6가지 스타일의 세 도시 간 스타일, 의복색, 액세서리, 코디네이션 비교표를 다음의 <표 15>에 제시하였다.

<표 13> 스포츠캐주얼 스타일 의복색 비교표  
(단위: n(%))

분 류	상 의		하 의	
	상하이	베이징	상하이	베이징
단 색	1( 50.0)	1( 14.3)	2(100.0)	2( 28.6)
무채색	1( 50.0)	1( 14.3)	0( 0.0)	1( 14.3)
다 색	0( 0.0)	5( 71.4)	0( 0.0)	4( 57.1)
합 계	2(100.0)	7(100.0)	2(100.0)	7(100.0)

<표 14> 스포츠캐주얼 스타일 액세서리 비교표  
(단위: n(%))













구 분	액세서리	상하이	베이징
가 방	토드백	0( 0.0)	0( 0.0)
	숄더백	0( 0.0)	5( 71.4)
	크로스백	1(100.0)	2( 28.6)
	합 계	1(100.0)	7(100.0)
신 발	펌프스	0( 0.0)	1( 14.3)
	샌 들	0( 0.0)	0( 0.0)
	슬리퍼	0( 0.0)	0( 0.0)
	통샌들	0( 0.0)	0( 0.0)
	스니커즈	2(100.0)	6( 85.7)
	합 계	2(100.0)	7(100.0)
기 타	양 산	0( 0.0)	1( 25.0)
	선글라스	0( 0.0)	0( 0.0)
	머플러	0( 0.0)	0( 0.0)
	모 자	0( 0.0)	3( 75.0)
	합 계	0( 0.0)	4(100.0)

## V. 결 론

중국 패션시장 더 나아가 세계의 패션시장에서 한국의 패션브랜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진출하고자 하는 현지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들의 패션감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많은 한국의 패션브랜드들이 진출하고 있는 중국의 패션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스트리트 패션과 중국 주요 도시의 스트리트 패션의 비교분석을 통해 20~30대 중국 여성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선호도 파악 및 차이점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2009년 여름 서울, 상하이, 베이징의 스트리트 스타일을 분석한 결과, 주요 스타일을 클래식 스타일, 페미닌 스타일, 이지캐주얼 스타일, 로맨틱캐주얼 스타일, 캐릭터캐주얼 스타일, 스포

<표 15> 서울, 상하이, 베이징의 코디네이션 비교표

(단위: n(%))

분 류	스타일			의복색			액세서리			코디네이션		
	서 울	상하이	베이징	서 울	상하이	베이징	서 울	상하이	베이징	서 울	상하이	베이징
페미닌 스타일	7( 3.5)	27(13.5)	46(23.0)	상 의: 무채색 하 의: 다 색 원피스: 다 색	상 의: 무채색 하 의: 무채색 원피스: 다 색	상 의: 무채색 하 의: 다 색 원피스: 다 색	숄더백 펌프스 샌 들	숄더백 토드백 펌프스 양 산	숄더백 들 산			
클래식 스타일	13( 6.5)	9( 4.5)	11( 5.5)	상 의: 무채색 하 의: 무채색 원피스: 다 색	상 의: 무채색 하 의: 단 색, 다 색 원피스: 다 색	상 의: 무채색 하 의: 무채색 원피스: 다 색	숄더백 펌프스	숄더백 들 산	토드백 펌프스 샌 들			
이지 캐주얼	127(63.5)	74(37.0)	73(36.5)	상 의: 무채색 하 의: 무채색 원피스: 다 색	상 의: 다 색 하 의: 무채색 원피스: 무채색	상 의: 다 색 하 의: 무채색 원피스: 다 색	숄더백 샌 들	숄더백 스니커즈 양 산 모 자	숄더백 스니커즈			
로맨틱 캐주얼	34(17.0)	55(27.5)	45(22.5)	상 의: 무채색 하 의: 무채색 원피스: 다 색	상 의: 무채색 하 의: 단 색, 무채색 원피스: 다 색	상 의: 다 색 하 의: 무채색 원피스: 다 색	숄더백 펌프스 샌 들	숄더백 들 산	숄더백 펌프스 양 산			
캐릭터 캐주얼	19( 9.5)	33(16.5)	18( 9.0)	상 의: 무채색 하 의: 무채색 원피스: 단 색	상 의: 다 색 하 의: 단 색, 무채색 원피스: 무채색	상 의: 다 색 하 의: 단 색 원피스: 무채색	숄더백 들 모 자	숄더백 들 모 자	숄더백 펌프스 스니커즈 모 자 양 산			
스포츠 캐주얼	0( 0.0)	2( 1.0)	7( 3.5)		상 의: 단 색, 무채색 하 의: 다 색	상 의: 다 색 하 의: 다 색		크로스백 스니커즈	숄더백 스니커즈 모 자 양 산	없 음		

츠캐주얼 스타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스타일, 의복색, 액세서리별로 세 도시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스타일을 비교하면, 서울의 페미닌 스타일은 중국의 두 도시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지만, 클래식 스타일은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이지캐주얼은 세 도시 모두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서울이 상하이, 베이징보다 2배 가까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로맨틱캐주얼은 서울보다 베이징 상하이가 10% 이상 높은 빈도를 보였고, 캐릭터캐주얼은 서울과 베이징은 유사한 반면 상하이에서는 2배 이상 높은 빈도를 보였다. 따라서 도시별로 선호되는 스타일에 차이를 보이는데, 서울은 클래식 스타일과 이지캐주얼, 베이징은 페미닌과 로맨틱캐주얼 스타일, 상하이는 캐릭터캐주얼과 로맨틱캐주얼 스타일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베이징과 상하이의 경우는 페미닌 스타일에서 상체를 노출한 경우가 다수 관찰되었다. 이 결과를 통해 서울에서는 보수적이고 편안한 스타일을 선호하고, 베이징과 상하이에서는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여성적인 스타일이 선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스포츠캐주얼 스타일은 서울에서는 전혀 관찰되지 않았고, 베이징에서 유의한 수치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베이징 올림픽의 영향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의복색을 비교하면, 세 도시에서 나타난 의복색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체적으로 세 도시 모두 원피스 스타일이 많은 페미닌과 로맨틱캐주얼 스타일에서 다색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하절기 원피스에 화려하고 대담한 문양의 소재가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외에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상의에 무채색(White)이 주로 선호되고 있었고, 하의에는 무채색(Black, Gray 계열) 및 단색(B 계열)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 색들은 모두 한색이자 축소색으로, 하체를 날씬하게 보이게 하고자 하는 한국과 중국 여성들의 선호경향으로 유추된다.

마지막으로 액세서리를 비교해 보면, 페미닌 스타일에 코디네이션 되는 액세서리 착용빈도는 각 도시 별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스타일과 무관하게 빅숄더백이 세 도시 모두에서 다수 관찰되었고, 특히 모든 캐주얼 스타일에서 숄더백의 빈도가 가장 높았기 때문에 착용시의 기능성과 활동의 자유를 중시하는 캐주얼의 특성이 잘 반영된 액세서리 코디네이션이라고 사료된다. 서울에서는 빅숄더백과 샌들 혹은 펌프스의 코디네이션이 많이 관찰된 반면, 상하이와 베이징에서는 빅숄더백, 샌들 혹은 스니커즈, 양산의

코디네이션이 다수 관찰되었다. 특히 상하이와 베이징에서의 양산 선호는 대부분의 스타일에서 낮은 빈도이기는 하지만 일관성있게 관찰되었다.

전반적으로 세 도시의 의복 스타일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전체적인 코디네이션에 있어서 서울의 여성 스트리트 스타일은 보수적이고 편안한 스타일에 솔더백, 펌프스, 샌들을 코디네이션한 반면, 상하이와 베이징은 상체를 과감하게 드러내는 스타일에 솔더백, 스니커즈, 양산의 코디네이션 빈도가 높다는 점에 가장 큰 차이가 있었다. 즉, 의복 스타일의 수용 속도는 세 도시가 유사하지만, 액세서리 코디네이션에서는 약간의 도시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경제대국으로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 중인 중국의 패션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한국 패션기업들에게 세계적인 패션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도록 중국 여성 소비자의 의복 스타일 선호경향 및 코디네이션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 연구의 제한점으로 2009년 여름 시즌 2주 동안의 사진촬영을 통한 자료의 분석이므로 연구대상도시의 전체적인 스타일로 판단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는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더욱 심도있는 도시 간, 국가 간 비교를 실시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간문자. (2007). *패션과 디자인*. 서울: 신정
- 국내 추동 패션시장. (2009. 5. 4). *매일경제신문*. 자료검색일 2009. 5. 25, 자료출처 <http://www.mk.co.kr>
- 김미정, 꼭다라, 조윤진, 이유리. (2006).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을 이용한 한국과 중국의 의류산업 경쟁력 분석. *한국외국어학회지*, 30(9/10), 1354-1365.
- 김용준. (2006). *CHINA MARKETING*. 서울: 박영사.
- 김용준. (2007). 중국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실증 연구: 베이징, 상해, 광둥 소비자 비교를 중심으로. *마케팅연구*, 22(2), 21-47.
- 김월순, 김은희, 이인영. (2004). *토탈 패션코디네이션*. 서울: 예림.
- 김재은, 박길순. (2004). 한류 현상이 중국 신세대 패션에 미친 영향분석. *한국외국어학회지*, 28(1), 154-164.
- 김정원, 척림. (2006). 중국 신세대 남녀의 생활 및 패션태도 요인분석. *한국외국어학회지*, 8(1), 71-79.
- 김찬주, 노미경. (2006). 서울과 베이징 여성들의 데님패션 비교 연구. *복식*, 56(2), 32-44.
- 김태수. (2004). *중국 패션시장 알고 가야 백전백승*. 서울: Fashion Insight.

- 김효숙. (2000). 중국 여성 소비자의 의복 디자인 선호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생활문화예술논집*, 23(1), 103-114.
- 류은희, 한정숙. (1997). 국내 남성 복식의 캐리커제주얼화 경향에 관한 고찰. *계명대학교생활과학연구소 과학논집*, 23(1), 235-249.
- 박혜원, 장춘희, 신혜봉. (2005). 중국 대도시 직장여성들의 의복구매행동 비교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9(1), 124-135.
- 배수정. (2007a). 중국 동북 3성 스트리트 패션 분석 (제1보)-2006년 봄 대런시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31(11), 1554-1564.
- 배수정. (2007b). 중국의 새로운 성장축 동북지역 스트리트 패션분석 (제1보). *한국가정과학회지*, 10(3), 53-64.
- 배수정, 백정현, 최윤규, 유화정. (2008). 2007년 여름 중국 대런시 여성 스트리트 패션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31(11), 1692-1703.
- 배수정, 오현아. (2007). 중국의 새로운 성장축 동북지역 스트리트 패션분석 (제2보). *한국가정과학회지*, 10(3), 43-51.
- 백정현, 배수정. (2008). 2006-2007 F/W 중국 대런시 여성 스트리트 패션 분석. *패션비즈니스*, 12(2), 59-71
- 석혜정, 김인숙. (2007). 중국 진출 한국 여성복 정장 업체의 치수규격 현황 및 적합성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1(7), 1148-1156.
- 세계기후자료 월별평년값. (2009). 기상청. 자료검색일 2010, 1. 14, 자료출처 <http://www.kma.go.kr>
- 손미영. (2007). *글로벌패션마케팅*. 서울: 창지사.
- 손미영, 김용주, 지혜경. (2007). 한국 패션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중국 시장 활용 전략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1(4), 507-518.
- 신수연, 장은영. (2007). 중국 진출 국내 패션브랜드의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IMC) 전략. *복식문화연구*, 15(3), 483-495.
- 신수연, 조정아. (2009). 한국 패션브랜드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한국의류학회지*, 33(1), 22-32.
- 심부자, 권영자. (2003). 중국 의복사이즈의 규격설정에 관한 현황분석. *복식*, 53(1), 117-128.
- 양동평. (2006). *중국의 두 얼굴*. 장영권 옮김 (2008). 서울: 펜타그램.
- 오현아, 배수정. (2005). 2005년 여름 중국 선양지역의 여성 스트리트 스타일 분석. *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 15(1), 41-50.
- 올해 한국 패션시장 26조 7천억원 규모. (2009, 12. 11). *패션저널*. 자료검색일 2009, 12. 23, 자료출처 <http://www.okfashion.co.kr>
- 왕야, 김용숙. (2007). 중국 여대생의 의모관리 특성과 의복구매행동. *한국생활과학회지*, 16(1), 145-157.
- 왕혜연, 김용숙. (2005). 중국 신세대 여성들의 감각추구성향에 따른 의복탐색행동. *복식*, 55(3), 81-93.
- 위혜정, 손희순. (2006). 중국 성인 여성용 의류치수규격 설정 연구(제1보). *패션비즈니스*, 10(5), 135-158.
- 이경림, 박수현, 권미정. (2009). 의복의 조형요소에 따른 클래식 이미지 분류. *한국의류학회지*, 33(1), 160-171.
- 임순, 김효숙, 손희정. (2001). 한국과 중국의 스트리트 패션 비교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0), 19-28.
- 임순, 손희순, 석혜정. (2003). 중국 성인 여성의 체형 연구 (제1보)-베이징과 상해에 거주하는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7(7), 831-842.
- 장희경, 손희순, 임순, 김영숙. (2001). 중국 여대생 대상 한국 의류제품의 맞음새 평가. *패션비즈니스*, 5(1), 145-156.
- 정귀수, 김유진. (2009). *국내의류시장 분석 및 향후전망* (제11호). 서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정홍숙, 강근영. (2004). 국내 의류업체의 중국 시장 브랜드 마케팅 전략 제안. *중앙대학교 생활과학논집*, 20(1), 89-106.
- 조규화, 이희승. (2004). *패션미학*. 서울: 수하사.
- 중국 소비시장의 新조류. (2007, 11. 28). *삼성경제연구소*. 자료검색일 2008, 10. 28, 자료출처 <http://www.seri.org>
- 중국의 지역분화를 알면 백전백승. (2006, 9. 29). *LG 경제연구원*. 자료검색일 2007, 5. 14, 자료출처 <http://www.lgeri.com>
- 지만수, 박월라, 이승신, 박현정, 최의현. (2008). *중국 소비시장의 특징과 진출전략*. 서울: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차이나 패션주간: 빛과 그림자. (2008, 7. 4). *중앙일보*, p. 18.
- 천지영, 배수정. (2006). 2005년 여름 중국 대런시 여성스트리트 패션분석. *패션비즈니스*, 10(2), 1-17.
- 최경희. (2004). 중국 직장여성의 스트리트 패션 연구-베이징을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학술논문집*, 25(1), 221-234.
- 최경희. (2005). 중국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캐주얼 이미지 연구. *호남대학교 학술논문집*, 26(2), 875-894.
- 트렌드위버 상해 백화점 · 쇼핑몰 소비자 보고서. (2007, 9. 10). *Fashion Insight*. 자료검색일 2007, 11. 8, 자료출처 <http://fi.co.kr>
- 트렌드에 목마른 상하이니즈. (2008, 7. 11). *중앙일보*, p. 16.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07). *중국 의류산업의 최근 동향과 시장특성* (제2007-43호). 서울: 한국섬유산업연합회보고서.
- KOTRA. (2008). *대중 섬유수입규제 해제와 세계 섬유시장의 변화* (Global Business Report 08-002). 서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KOTRA. (2009). *중국 내수의 新 블루오션* (Global Business Report 09-009). 서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Bae, S. J. (2005). A study on the effective way of supplying of highly educated fashion specialis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lothing & Textiles*, 29(12), 1562-1570.
- Bae, S. J. (2007). An analysis of 2006 summer street fashion in Harbin, China.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1(3), 87-96.
- Bae, S. J., Wee, E. H., & Jung, K. H. (2008). 2007 summer women's street fashion in Shenyang, China.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2(3), 1-15.
-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08. (2008, 8. 15) *World Trade Organization*. Retrieved December 23, 2009, from <http://www.wto.org>